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

북과 비준·서명 후 효력 발생...러시아 파병도 법정 구실 소련 해체 후 사실상 부활...식량·에너지 등 전략 분야도 협력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다.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측이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주권 존중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지·발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국제적 협력, 국제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제1-3조를 구성한다.

제5조부터는 상대국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다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이른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내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방위 능력 강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한다는 취지와

함께 분야별 협력 대상도 나열돼 있다. 무역·투자·과학기술, 국경 문제, 농업·교육·보건·품질인증·법인 및 국민 권

리 보호, 법 집행 및 제정, 테러·불법이 주 등 국제적 위협, 정보 안전, 문학 및 언어연구, 언론 및 허위 정보 대응, 조약 이행을 위한 세부 협정 체결 등이 협력 분야로 거론돼 있다. 마지막 23조에는 조약이 무기한 유지되며 종료 시 1년 전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제2조가 핵심을 드러낸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상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친애하는 한강님 나와주세요” 노벨상 시상식서 한국어로 호명

한국어 수상 강연도 주목...번역가 “韓문화 자리매김 감개무량”

한 달 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소설가 한강이 자신에 대한 우리말 소개를 들으며 시상식 무대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의 작품을 스웨덴어로 옮긴 박옥경 번역가는 10일(현지시간)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마지막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학상 선정 기관인 스웨덴 한림원의 위원 한 명이 시상에 앞서 스웨덴어로 한강을 소개하는 연설에 나서는데, 그간의 관례대로 한강을 무대로 맞이하는 마지막 문장을 작가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강은 수상자 공식 강연도 우리말로 할 예정이라 노벨상 시상식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릴 스톡홀름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게 됐다.

해마다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하는 평화상을 제외한 5개 부문 시상식이 이뤄진다. 부문별 선정기관 위원이 각각 5분 안팎의 시상 연설을 하고 나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상을 수여한다. 다른 부문의 시상 연설은 영어로 이뤄질 때도 많지만, 스웨덴어 권위의 전문가가 종신 위원을 맡는 스웨덴 한림원의 문학상 시상 연설은 통상 스웨덴어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수상자의 모국어로 연설을 마무리하곤 한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상을 위해 수상자를 호명하고 무대로 맞이하는 표현이 담긴다.

수상자는 시상식에서는 연설하지 않고 별도의 강연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수상 소감뿐 아니라 문학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전한다.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고르고 고른 언어로 들려주는 강연



오는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소설가 한강.

문은 두고두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주목받으며 이후 서적으로 출간되기도 하며 오랫동안 읽힌다.

스웨덴 한림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강은 12월7일 한국어로 강연하며 영어와 스웨덴어 번역이 제공된다.

이 스웨덴어 번역도 박 번역가와 남편 안데르스 같은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한국학 교수가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 번역가는 스웨덴 유학 중 만난 남편 같은 교수와 1990년대부터 공동으로 번역 작업을 해왔으며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을 스웨덴어로 옮겼다.

두 번역가는 “번역 초창기를 생각하면 대부분 출판사가 한국 작품 출판에 미온적이었는데 이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세계 문학속에 한국문학이 뚜렷하게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권이양 협력” 바이든 13일 트럼프 만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임하는 대통령이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취임을 앞둔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2000년 대선 패배 후 결과 조작을 주장하며 불복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연설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이양”을 약속하고서 “이것은 미국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남서부 기차역서 자폭 추정 테러...“24명 사망”

테러가 잦은 파키스탄 남서부의 한 도시 기차역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발루치스탄 주도 퀘타의 기차역 플랫폼에서 북서부 카이버파크 툰크와주 주도 페사와르행 급행열차가 출발하려는 즈음에 폭탄이 터

졌다고 말했다. 사망자 외에 44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중 상태가 위중한 이들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발루치족 분리주의 무장조직인 ‘발루치스탄해방군’은 기차역에 있던 병력을 겨냥해 자살 폭탄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